



Thea Bohea, Thea
 차나무

차나무는 정원수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월동이 어려워 남부 지방에서만 차나무를 정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차로 마시는 차나무로서 보다는 조경수로서도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차나무과
- ▶ 학명 : *Thea sinensis*
- ▶ 영명 : Thea Bohea, Thea
- ▶ 일명 : 차의키

1. 생태적 특성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중국에서 도입되어 각처의 사찰에 식재하여 현재는 경남, 전남, 제주도 지역의 따뜻한 여러 곳에서 산지에 자생상으로 나타나는 상록활엽관목으로 수고 4~5m까지 자라며 가지가 많이 발생하여 수형이 단정하고 아름답다. 이식은 용이하하나 내염성이 약하여 해안지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부속 홍릉수목원에는 식재된지 40년 이상되는 차나무 한그루가 큰나무 아래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햇빛이 잘 비추는 곳보다는 큰나무 아래 북서쪽이 가려진 곳에서 겨울이면 잎의 끝이 약간 피해를 보면서 겨울을 나고 다시 봄이면 새잎이 돋아 원상회복이 된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호생하고 피침상 장타원형이며 두껍고 광택이 있으며 길이 2.5~5.0cm, 넓이 2~3cm로서 양면에 털이 없고 표면은 녹색이며 잎자루는 길이가 2~7mm정도이다. 꽃은 양성으로 10~11월에 피고 지름이 3~5cm로서 백색이며 향기가 있고 1~3개가 가지와 잎자루 사이에 모여 피거나 가지 끝에 달린다. 열매는 다음해 11월에 결실하는데 다갈색으로 익으며 목질화되어 열리고 그 속에 둥글고 단단한 종자가 들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잎과 꽃이 아름답고 특히 전정한 생울타리는 아름다워 정원에 열식하면 좋다. 맹아력이 뛰어나 수형 조절이 용이하여 원하는 형태의 수형으로 조절할 수 있어 동피의 소재로도 활용 가능하다.

4. 번식법

좋은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삼목번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 조경수로 식재되자 하면 종자번식이 유리하다.

- 삼목

삼목은 그해 자란 가지 중 다소 굵은 것을 골라 10~15cm 길이로 잘라 밑쪽 잎을 따고 물에 담구어 물을 옮긴 물통에 발근촉진제를 발라 1/3가량 묻히게 꽂는다. 삼목용토는 배수가 잘되면서도 보습력이 있어야 한다. 삼목용토는 차광하여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사흘에 한번씩 관수한다.

- 파종

10월경 종자가 성숙되었을 때 채종하여 따뜻한 남쪽에서는 가을에 파종하고 추운 곳에서는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5. 그 밖의 용도

어린 잎은 차를 만들어 음용하고 목재는 단추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차를 마신 역사는 멀리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에는 삼국 시대 이전의 고조선 시대부터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백산중에 있는 진달래과(石南科) 식물의 잎으로 차를 만들었다는 백산차이다. 그러나 이 차는 대용차로 다도에서 쓰이는 차, 즉 정통차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차는 원래 우리나라 땅에 자생하던 것이 아니라 중국 또는 인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의 전래에 관한 기록은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삼국유사]에 수록된 '가락국기'에 보면 수로왕비 허황옥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차의 전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 당나라 황제인 문종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지리산 일대에 파종해 쌍계사나 화엄사 등을 중심으로 점차 전파되어 나갔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차나무를 적극 재배하고 제다법이나 차 의례도 발달하고 중국 다(茶)문화가 폭넓게 수용되어 우리나라에 음다(飲茶)풍속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